

“나는 자아를 벗어날 수 있다”, 고로 장애물이 없다

- 관찰 대상의 모습은 전적으로 우리의 느낌에 의해 결정된다. 사람의 느낌이 투사됨으로써 비로소 대상의 형태— 온도, 질감등이 정해지는 것이다.